



동구, 통일만보 행사
광주시 동구는 25일 무등산 동적골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임택 동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걸으면서 통일한다’ 통일만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걷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 고 김홍빈 원정 대장을 추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구, 통일 순회 강좌
광주 남구는 24일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주원 서울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통일문제의 이해’란 주제로 통일 순회강좌를 개최했다.



북부소방, 노인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광주 북부소방서가 노인활동 중심 공간을 방문해 화재예방교육 및 생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안전 지킴이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23일 끝난 이번 방문형 노인안전지킴이 운영은 소방안전에 취약한 원거리 자연 부락 2개소를 포함한 관내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종훈 119재난대응과장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생활안전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현 시대에 그 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며 “일상 속 안전 교육 등을 통해 평소 안전정보를 충분히 숙지해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청렴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패방지·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국가의 청렴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청렴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 관련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번 캠페인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 다같이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대인동 일대에서 주변 상인 및 행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허정회장은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인 만큼 적십자사가 깨끗한 세상 만들기에 적극 앞장설 것이다”고 전했다.

/김민빈 기자

인사	
광주 광산구	◇ 5급 승진결 ▲ 시민협치과장 직무대리 조정일 ◇ 5급 전보 ▲감염병대응지원단장 이광선 ▲시민안전과장 박병규
연합뉴스	▲편집총국장(편집국장 겸임) 조재희 ▲기획조정실장 강의영 ▲경영지원

“취업절벽 청년들 재도약 기회 제공 주력”

남구청 혁신정책과 공현주 팀장

‘IT강사 양성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 노력 행안부 공모 등 집중...기업·청년 혁신성장 도모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절벽 시대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힐링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광주 남구청 혁신정책과 공현주 팀장(42·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공 팀장은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IT강사 양성과정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거점공간인 ‘청년와락’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 정책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오는 11월에는 일자리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팀장은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모집해 교육, 자격증 취득 과정을 거쳐 그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했을 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공 팀장은 “‘청년와락’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청년들에게 IT관련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운영했던 3D펜 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참가자 중 취업을 희망한 교육생 전원이 초·중·고 방과후 강사로 연계돼 뿌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코딩강사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며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 전원이 취업의지가 강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공 팀장은 현재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공 팀장은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며 “우리지역 중소·중견기업 19개소에 청년 2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인건비와 자격증 취득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우리 지역 기업과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 할수 있도록 지역 청년 일자리를 기획·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청년와락에서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다”고 다짐했다.

공 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의 아픈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취업상담, 지역 일자리 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재민 기자

“사회 보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신숙경 회장, 광주평통 5개구여성위원장 선임

지역 평통자문위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탄생했다.

신숙경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이 최근 광주 평화통일자문위원회 5개 구청여성위원장에 선임됐다.

신 위원장은 “이번 선임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작은 힘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대한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상임위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아너스클럽 여성 1호, 21여성발전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이은봉 시인, ‘제8회 풀꽃문학상’ 풀꽃상

대술상엔 김지현

제8회 풀꽃문학상 풀꽃상에 이은봉 시인의 시집 ‘걸어 다니는 별’이 수상했다. 대술상에는 김지현 시인의 ‘심장을 가졌다’가 선정됐다.

풀꽃문학상운영위원회 심사위원인 유성호 한양대 교수는 “이은봉 시인은 자연 사물을 벗어나 그 시공간을 서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언어적 매무새에서 원숙한 경지를 보여줬다”며 “특히 구체적인 경험에 기초한 서정적 언어에 전진적인 역사적의식을 가진 짧은 형식 안에 압축된 숨결 같은 기쁨까지 있어냄으로써 서정시의 확장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현 시인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한 관찰과 표현이 활발한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체험의 부단한 변형 과정을 서정시의 중요한 창작 원리로 보여주고 있고, 서정적 언어가 논리적 이성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미학적 섬광을 표현하는 등도 없는 양식임을 알게 해준다”고 평가했다.

충남 공주 출생으로, 현재 대전문학관장을 맡고 있는 이은봉 시인은 1984년 17인 신작 시집 ‘마침내 시인이여’를 통해 단단해 ‘걸어 다니는 별’, ‘생활’, ‘봄바람. 은여우’ 등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다.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논산 강경 출생인 김지현 시인은 1997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해 ‘다음 마을로 가는 길’, ‘회중시계’, ‘형광빛 가창소리떼’, ‘배롱나무 사원’ 등 시집을 출간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7일 제4회 풀꽃문학제에서 진행된다.

/이연수 기자



스포츠산업 권위자 전호문 목포대 교수 별세

한국스포츠산업마케팅 분야의 권위자로 광주·전남체육 발전에 앞장서온 전호문 목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지난 22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57세.

전 교수는 서석고 시절 세계청소년검도대회 개인전 3위를 차지한 엘리트 검도선수 출신으로 목포대 체육학과를 거쳐 미국 미시시피주립대에서 스포츠산업마케팅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3년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올해까지 29년간 지역스포츠산업 발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목포대에 재직하는 동안 27명의 박사학위를 배출, 후학 양성을 통한 지역스포츠산업의 학문과 현장 지평을 넓히는데 공헌했다.

대한체육회 전략위원회 위원·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평가위원·한국스포츠의



교포팀 사무총장·국민생활체육회 자문위원·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한 스포츠산업마케팅 분야의 권위자로 무엇보다 광주·전남 지역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인프라 확장에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역 스포츠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고인은 무안군 천국의 계단 추모관에 안치됐다.

/최진화 기자

강준섭 진도다시래기 보유자 별세

진도에서 태어나 평생 팔도 곳곳을 떠돌며 공연한 ‘이 시대 마지막 유랑 광대’ 강준섭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보유자가 지난 24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무당 일을 하던 집안에서 4남 1녀 중 넷째 아들로 출생해 자연스럽게 예인(藝人)이 될 환경에서 자랐다.

국가무형유산원이 발간한 구술 자서전에 따르면 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던 판소리 명창 신치선에게 소리를 처음 배웠고, 14세에 여성 창극단에 입단해 유랑하며 공연했다. 청년 시절에 잠시



군대에서 복무한 것을 제외하면 1970년대까지 계속 유랑극단 활동을 했다. 1975년 진도다시래기 복원활동에 참여했고, 1979년에는 국립극장에서 진도다시래기 공연을 했다. 진도다시래기가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자 고인은 인간문화재가 됐다.

/연합뉴스

전매게시판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자우편 : jndn@chol.com

결론

▲권오윤(전남대생명화학공학부 교수)·홍중옥씨 아들 권희정군, 오성권(대우전자 특판)·김현란씨 딸 오민진양=10월 2일(토) 오후 2시30분 광주 서구 풍서좌로 제이아트웨딩홀 3층 페디스홀

▲김형수(건설업)·이정미씨 아들 김양희군, 조광석(베네스다요양원 원장)·정민희씨 딸 조성은양=10월 2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죽봉대로 위더스웨딩홀 3층 아모르홀

▲고 안광수·최미숙씨 아들 안현성군, 최소영(광주 양지종합사회복지관장)·정민영씨 딸 최이레양=10월 2일(토) 오후 4시40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더컨벤션 송파문정 13층 아모르홀.

▲조동수(전 광주일보 주필)·서경숙씨 아들 조찬호군, 김삼겸·남희씨 딸 김혜인양=10월 3일(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도심공향터미널 소노펠리체 다이아몬드홀

▲정용빈·전지원씨 아들 정재호군, 이홍재(광주일보 주필)·김숙희씨 딸 이보미양=10월 4일(월) 오후 2시30분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드레스가든

알림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분만 혜택과 상담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 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부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서서비스(주 5일 운영) 화일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